

만해축전을 통해서 본 한국문학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seen through Manhae Festival

이원오, 류지성, 김지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Won-Oh Lee(wonohlee@hanmail.net), Ji-Sung Rhyu(sundevil@dankook.ac.kr),
Ji-Won Kim(jwkim.0204@daum.net)

요약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 매체에 넘겨주게 되었고, 한국문학은 문학수요자의 이탈과 젊은 문학 수요자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래 급증하여 최소 110개에 달하는 문학제는 사회저변에 문학을 알리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은 문학제 가운데 이미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만해축전을 선정하여 그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문학정책의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만해축전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문학축제로 강원도 인제라는 오지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만해대상 시상과 각종 문화예술 및 학술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손꼽히는 문학제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향후 만해마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흥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학축제화 및 슬로시티와 문학 관광기행 특구 지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만해를 스타 브랜드화 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구할 경우 보다 발전적인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의 대부분의 문학제가 지역 문인 위주의 소규모 행사에서 머물고 있는 데 대해 시사점이 크다. 이제 문학제는 대중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성공적인 문학진흥정책과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연구의 외연을 넓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중심어 : | 문학제 | 만해축전 | 문화예술정책 | 문학진흥정책 |

Abstract

When the Information age led by media comes, The literature yielded its prominence to visual media, and the Korean literature also faced a crisis, prompted by decreased demand for it. In this reality, literature festivals which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1995 and currently number at least 110, whe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launche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literature to the society. This thesis has selected Manhae Festival, one of the most vibrant and successful, as the case study to analyze its present status and accomplishments to derive ways for improvement which can be used to promote policies on literature. Manhae Festival which celebrates Manhae Han Yongun, a poet and an independence activist, also became one of the top literature festivals through Manhae Grand Awards and various cultural, art and academic events, despite being held in Inje County, Gangwon Province, a remote location. Based on this study, in the near future, Manhae Village, as a complex cultural venue, as a If we can make the place into complex cultural space and with additional policy support by gaining political supports like designation as Slowcity and special zone of culture and tourism, and pursuing glocalization by making Manhae into a star brand, Manhae Festival will cement its current position as a successful literary festival. It has very meaningful since most of literature festivals operate in small scale. Now, we need to develop literature festivals into local ones by attracting larger popularity. Meanwhile, a more comprehensive study, in the future, is needed with special emphasis on successful literary policies and their precedents in other countries.

■ keyword : | Literature festivals | Manhae Festival | Culture and Art Policies | Literature Promotion Policies |

1. 서론

1. 연구목적

문학은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인간과 사회를 진실하게 묘사하는 예술이다. 헉슬리(Aldous Leonard Huxley)는 문학은 정화된 쾌락의 모든 근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정의의 바 내린 바 있다[1].

문학은 기초예술의 핵심장르이다. 유럽에서는 문학은 곧 문학으로 여길 정도로 아직도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2]. 지난 세기말부터 문학의 사회적 위상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 매체에 넘겨주었고, 이로 인한 문학 수요자의 이탈과 함께 젊은 문학 수요자 기반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문학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3].

최근 들어 한국문학의 시장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문학의 침몰현상이 심상치 않아 교보문고가 집계한 2015년 4월 100위권 베스트셀러 목록에 한국소설은 김진명의 '싸드'가 55위에 올랐을 뿐만 1권도 순위 내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4]. 이 데일리리는 대학 내 작가 지망생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던 대학 문학상이 인문학 홀대 분위기와 맞물려 11개 주요 대학 중 4곳은 이미 상을 폐지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

우리나라에서 문학이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세워지고 문학을 포함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문화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문학을 포함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문학제다.

문학제는 문학의 침체 속에서 사회 저변에 문학을 알리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만토바(Mantova) 문학제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9월에 5일간 진행하면서 작가와 독서, 공연과 음악회 등을 통하여 문화적 유희를 표방

하는 행사로 2009년의 경우 400여 명의 작가와 예술가를 초대하여 288개의 행사에 참가자가 9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소도시 스트랫포드(Stratford)시는 인구 3만 명의 소도시로 제조업의 침체에 고민하던 중 셰익스피어의 고향과 도시 이름이 같다는데 착안, 1953년도부터 매년 셰익스피어 작품을 소재로 연극축제를 개최하여 연간 60여만 명의 관객과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¹⁾

이처럼 외국의 성공적인 문학제는 도시의 특성을 살려 문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문학진흥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문학제가 문학의 진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지만 독자(관객)의 참여가 적고, 문인들만의 행사화하는 경우도 많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최소 110개 이상에 달하는 문학제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문학진흥정책의 주요사안으로 대두한다.

이에 한국의 문학제 중 성공적인 문학제라 한다면 단연 만해축전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해축전을 통하여 발간된 연구 저작물이 1,000여 건에 달하고 있고, 4일간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해대상에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선정하여 국제화를 지향하는 등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학제 중 만해축전이 그 의의와 규모로 볼 때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선, 정책 측면에서 우리나라 문학진흥정책과 문학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표적 문학제인 만해축전을 통하여 문학제의 한계점을 시사해 보며, 이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스트랫포드 축제는 민간 주관기구인 SFC(Stratford Festival Canada)의 주도하에 정부는 도시기반시설 등 간접적인 지원을 주로 담당하여 방문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축제의 성공으로 스트랫포드는 물론 온타리오 주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캐나다의 문화와 예술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의 문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문학진흥정책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자료와 문화예술정책백서 등을 통해 문학계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본다. 이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만해축전을 선정하여 문학계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만해축전 현장을 방문하여 만해축전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사참여자 등을 면담하고 2014년 만해축전 실적보고서와 평가·제안서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학진흥정책의 검토 및 운영현황과 실태, 발전의 저해적인 요소 등을 한계로 논의점을 찾아본다. 이는 문학과 지역축제로서 연계방안 등 보다 글로벌한 축제의 진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II. 문학진흥정책과 문학제

1. 문학진흥정책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

문학진흥 정책에 대한 개념 정립은 아직은 미흡한 것 같다. 다만 문화예술정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공공정책이란 정부가 사회의 각 분야별 문화, 가치, 규범, 형태, 물리적 환경 등 사회적 상대나 조건들을 유지하거나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간여의 수단이다. 예컨대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 간여 행동에 대해 상호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이다[6]. 즉,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들어 놓은 행동지침인 셈이다.

문화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7]. 이런 이유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간여에 대해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등장하고, 많은 선진국의 정책에 불문율이 되기에 이르렀다[8].

우리나라 문학진흥 정책은 문화예술 정책에 포함되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다. 해방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1950년 국립극장과 1951

년 국립국악원이 출범하고, 1954년 학술원과 예술원이 설립되었다. 1961년에는 문학, 무용 등 10개 문화예술단체를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예총)가 발족하였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법률로서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1973년 문예진흥원 설립, 문화예술진흥기금 부과, 1981년 문화부 신설 및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 수립, 199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19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 설립,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 출범이 이뤄졌다.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등 꾸준히 이뤄져 왔다. 한국의 문학진흥 정책은 크게 다음 표와 같은 변화를 거쳐 왔다.

표 1. 한국문학진흥정책의 변천(9)

시기	특징	주요정책
자본주의 문화도입기	자유방임주의 원칙 하 민족 문화 관심 시대 (1950년대)	문화보호법 제정(1952) 으로 학술원과 예술원 설립(1954),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정부에서 문화에 관심을 두지 못함
국가주도의 문화 정책기	반공주의 강조, 정부가 지원과 규제책 병행 (1960년대)	공연법 제정(1961), 예술 문화윤리 위 설립(1966) 문학 등 10개 문화예술 단체를 회원으로 한국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예총) 발족, 문화공보부 신설(1968)
민족문화 강조기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조 강조, 10월 유신 으로 활동 통제 (1970년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1973) 대한민국 문학상 제정(1976)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 집행
문화 복지 정책기	각종 문화관계법령 정비, 문화의 대중화 추구(1980년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82)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 수립(1984) 종합문화회관 설립(6개소)
문화산업 정책기	문화부 신설 및 해외 문화유입 등 개방정책 (1990년대)	문화부 신설(1990)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설(1992)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 단지 조성(1994) 한국문학번역금고 설립(1996)
성숙기	문화예술 예산 증가 등 문화 예술정책 본격추진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출범(2001) 출판 및 인쇄진흥법(20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2005)

문학진흥정책은 지원은 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된 공공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 마케팅 등을 통해 공공 부가가

치를 높이는 한편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문화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예술정책을 통해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10].

현 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 기조 중 ‘문화융성’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에서 문학 분야는 첫째, 1999년부터 침체된 문학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로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창작여건 조성 사업, 둘째, 장기적으로 문학의 자생적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문학 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학관 건립 등 문학 인프라 구축, 셋째, 대외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학정책의 정책목표는 창작지원 정책,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보다 쉽게 문학을 향유·소통할 수 있는 정책, 문학의 해외전파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문학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11].

문학진흥 정책의 기본요소는 문학 인프라 구축, 문인 육성 및 창작여건 보장, 문학소비자 지원 등이다. 정부의 정책은 외형상 이러한 제반 요소를 수렴하고는 있으나 문인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것은 문학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문인들을 도외시한 소통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문학진흥을 위해서는 문인 등 문학생산자와 독자 등 문학소비자들 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가 이를 결집하여 문학의 대중화와 국가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2. 문학제의 현황과 실태

현대적 의미에서 축제는 특정 장소에서 어느 정도 규칙적인 날짜에 개최되는 하나의 장르와 주제, 혹은 한 인물과 관련된 예술 관련 행사를 뜻한다. 따라서 문학제란 시낭송회, 문학상,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12].

우리나라에서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990년대 중반부터 그 수가 급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는 2006년 1,176개에서 2012년 2,429

개로 증가하였다. 지역축제는 지역유산의 창조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역공동체 강화,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의 문화축제는 그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문화 정책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위신을 대내외에 세워주고 주변 비즈니스를 유발하며 실질적 이점을 남겨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13].

문학제는 문화적 회상에 속하는 축제로 주로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작가의 문학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행사로 기능해 왔다. 특히 고인이 된 작가와 작품을 회상하고 기념한다[14]. 문학제 역시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래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 문인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문학제가 개최되고 진행됐다.

문학제의 현황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의 경우 2013년 ‘문학행사’ 분야에 문학(축)제를 86개로 기술하였고[15], 2014년 ‘문학행사’에는 탄생 100주년 문학제, 제13회 조명희 문학제, 김유정 문학제, 제9회 상화문학제 등 19개의 문학제를 기술하였다[16]. 현재 전국의 문학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포털 ‘네이버’에는 총 17개의 문학제가, 포털 ‘다음’에는 10개의 문학제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 연구자가 조사한 전국의 문학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문학제 현황[17]

지역	문 학 제	개
서울	서울국제작가축전, 서울문학축전, 영상섭문학제, 한강문학축전, 전태일문학제, 윤동주문학제, 한국문학축전	7개
부산	한국해양문학제, 요산문학축전, 이주홍문학축전, 윤동주 문학예술제, 부산국제문학제	5개
대구	이상화문학제, 현진건문학주간, 대구문학축제, 10월 문학제	4개
인천	김구용문학제, 인천근대문학제	2개
광주	다형문학대전, 용아문학제, 오월문학제	3개
울산	고래문학제, 바다문학제, 오영수 문학제	3개
경기	약천남구만문학제, 천상병예술제, 조지훈문학제, 황순원 문학제, 노작문학제, 북한강문학제, 남한산성문학제, 성남문학축전, 해산박두진문학제	9개
강원	김유정문학제, 만해축전, 원주박경리문학제, 세계평화 안보문학축전, 평창효석문화제, 간이역 문학축전 및 장승제, 교산허균문학제, 심연수문학제, 정선아리랑문학축전, 김삿갓문화제, 춘주문인한마음축제, 치악산생명문학제, 초허김동명주목전국문학제, 상하이 태준문학제, 박인환 문학제, 월하문학제	16개

충북	지용제, 홍명희문학제, 옥소예술제, 오장환문학제, 류승규 문학제, 신동문문학제, 포석조영희문학제, 무영제, 권태응문학제, 충청북도순회문학제	10개
충남	심훈상록문학제, 서산청소년문학제, 와초 박범신문학제, 보령문학제, 인희재문학제	5개
전북	전북문인대동제, 가람문학제, 석정문학제, 미당 문학제, 눌인김환태 문학제	5개
전남	이청준문학제, 영랑문학제, 고산문학축전, 목포 문학축전, 전국가사문학제, 조태일문학제, 김남주 문학제, 신안문학제	8개
경북	이육사문학축전, 동리목월문학제, 호미문학제, 낙강 시제문학페스티벌, 청송객주문학제, 백신애문학제, 백수문학제, 구상문학축제, 울진문학축전, 별빛문학제	10개
경남	토지문학제, 형평문학제, 우포생태문학제, 이형기문학제, 거제선상문학축제, 박재삼문학제, 통영문학제, 권한문학제, 이병주하동국제 문학제, 청마문학제, 이호우-이영도 오누이 시조문학제, 천상병문학제, 창원세계안보 문학 축전, 김달진 문학제, 김만중문학제, 경남 문학제, 이주홍문학축전, 지리산문학제	18개
제주	제주문학동인축제, 흥윤애 추모문학제	2개
전국	탄생100주년문학제, 장애인창작문학제, 대한 문학제	3개
계		110개

현재까지 확인된 문학제는 총 110개로 지역적으로는 경남과 강원이 각각 18개, 16개 순으로 많았으며, 문학제 명칭은 회고 문인과 작품의 이름을 내건 것이 68개에 달했고 나머지는 지역의 이름과 자연환경 등을 건 문학제였다. 주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표 문인을 선정하여 문학제를 명명하고 일정, 진행 시기, 규모와 프로그램은 문학제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당일에 한해 시낭송, 학술대회, 공연, 문학상 수여, 초청강연, 백일장 등을 통해 작가의 문학과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

문학제는 문학생산자인 문인과 문학소비자인 독자의 만남의 장이며, 문학의 대중화에 유효한 수단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지역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의 문학제는 광역자치단체(16개) 및 기초자치단체(229개) 중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110개 이상이 개최되고 있다. 앞으로도 문학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문학단체의 노력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문학의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상당수의 문학제는 당일치기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그 기획과 운영, 홍보, 정책적 지원 등 많은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상당수 문학제가 지역 문학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훌륭한 소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학유산과 연계하지 못하는 단발성 행사로 지역문화의 아이콘이 되지 못하거나[18], 소규모 행사와 썰렁한 분위기 등 축제 같지 않은 행사로 전락하기도 하고[19], 지자체의 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참여인원이 극소하며 지자체장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0].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일정 기간(3일)에 걸쳐 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는 총 664개이며 이중 문학제는 만해축전, 평창효석문화제, 지용제, 심훈상록문화제, 영랑문학제, 토지문학제 등 불과 6개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21].

III. 만해축전

1. 의의

만해 한용운(1879~1944)은 조선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시인이자 민족운동가, 승려로 평생을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바쳤다. 그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이로 인해 3년간의 옥중생활에서도 ‘조선독립의 서’를 지어 저항운동을 지속하는 등 일제의 모진 폭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18년 11월부터는 불교 최초의 잡지인 <유심>을 발간하였고,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여 한국 시문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으며, 1930년대에는 소설 <흑풍> 등 장·단편소설을 발표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만해에 대해 시인 조지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 - 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요 선생이 지닌바 이 세 가지 성격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아서 어느 것이나 다 양자를 저변으로 한 정점을 이루었으니 그것들은 각기 독립한 면에서도 후세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22].

미당 서정주 또한 한용운을 ‘애인과 인도자의 자격을 겸해 가진 이’로 평가하고 있다.

“신시대 시인들과 중들과 또한 그 밖의 모든 동포 중, 민족의 애인 자격을 가진 이들은 있었으나, 인도자의 자격까지를 겸해 가진 이는 드물었고, 또 인도자의 자격을 가진 이는 있었으나 애인의 자격을 겸해 가진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만해선사만은 이 두 자격을 허실 없이 완전히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23].

만해에 대한 조명은 그의 사후 지속해서 이뤄져 특히, 1979년 신구문화사에서 한용운 전집 6권을 간행하였고, <창작과 비평>에서는 만해 30주기가 되는 1974년 만해문학상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창작과 비평> 발행인 백낙청은 한용운은 한국 최초의 근대시인이요, 3·1 운동이 낳은 최대의 시민시인이며 동시대에 옛 한국 마지막의 위대한 전통시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24].

만해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 논문, 평전 및 일대기를 포함한 단행본이 1,000여 권에 달한다는 것은 만해가 지사적 독립운동가로서 민족 독립운동에 선명한 자취를 남겼고, 시집 <님의 침묵>으로 당대의 어떤 문학인보다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불교 개혁가로서 지금까지도 실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25].

이처럼 만해의 풍모와 업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를 기념하는 문학제를 개최할 만한 인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시문학사에 빛나는 시집 <님의 침묵>을 지은 인제군에서 축전을 개최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

2. 현황과 성과

만해축전은 만해의 탄생 120주년인 1999년 만해의 민족정신 함양과 불교적 평화실천 및 문학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시조시인인 설악무산 스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만해축전은 개최 이전인 1997년부터 전 세계인들에게 만해의 평화와 실천 정신 및 고결한 문학 정신을 알리기 위해 평화, 실천, 문예 부문의 만해대상을 제정, 19회를 이어오는 동안 이 상을 받은 4명이 노벨상을 받는 등 권위적인 상으로 발돋움하였다.

2003년부터는 유심작품상을 제정하여 시부문, 시조부문, 평론부문, 특별부문 등 4개 분야에 대해 시상하여 문학행사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1회에서 15회까지는 백담사를 중심으로 조계종 제3교구 관련기관들이 주관

해 왔다. 2014년부터는 운영주체가 백담사에서 동국대로 이관되어, 동국대, 강원도, 인제군,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축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만해축전은 매년 8월 중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만해마을과 하늘내린센타에서 평일 4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본 행사 이전에 6월 ~8월간 학술행사 2개와 청소년 음악캠프를 진행하며, 사후 행사로 8월에 학술행사 1개 정도가 실행된다.

표 3. 2015년 만해축전 행사일정[26]

일정	행사명	장소	주관단체	비고
6.27	동국문공과 한국 근대불교문학 전통	동국대	동악어문학회	학술행사
7.31	만해 한용운과 하영호	서울 신사동	만해학회	학술행사
8. 4 - 10	청소년 음악캠프	만해마을	니르바나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	문화예술행사
8.11	만해 한용운,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	만해마을	만해연구소	학술행사
8.11	해방 70년 분단 70년 민족문학의 역경	만해마을	창작21 작가회	학술행사
8.11	제 13회 유심 작품상 시상식	만해마을	월간 유심	시상식
8.11	전야제	만해마을	축전추진위원회	공연
8.11	대동제, 인재 문화 예술인의 밤	인제군	인제군 예총	지역대동제
8.12	사설시조의 위상과 현대적계승	만해마을	유심시조아카데미	학술행사
8.12	평화시낭송회	만해마을	창작21 작가회	학술행사
8.12	전국고교백일장	인제군	강원일보사	경연대회
8.12	현대불교사인연구	만해마을	현대불교문인협회	학술행사
8.12	제19회 만해대상 시상식	인제군	조선일보사	시상식
8.12	유성기 소리마당	만해마을	축전추진위원회	추모행사
8.12 -14	청년만해학교	만해마을	서사문화연구소	추모행사
8.12 -14	어린이 미술캠프	만해마을	어린이날다 협동조합	문화예술행사
8.12 -16	님의 침묵 서예대전	인제군	강원도민일보사	경연대회
8.13	설악큰스님 심포지엄	만해마을	시와세계	학술행사
8.13	21세기 한국 시문학의 가능성	만해마을	한국시인협회	학술행사
8.14	설악·금강 테마공연	만해마을	축전추진위원회	추모행사
8.14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만해마을	인제신문사	경연대회
8.28	불교와 내셔널리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평론	학술행사

만해축전의 프로그램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22개이며 이를 분류 시 학술행사 10개, 문화예술행사와 시상식이 각각 2개, 공연 및 지역대동제가 각각 1개, 경연대회와 추모행사 각각 3개이다. 대체로 학술행사와 추모행사가 13개로서 주류를 이룬다. 이중 지역대동제와 인제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는 주로 인제군민을 위한 행사이다.

만해축전은 행사 출범 17년을 이어오면서 국내 손꼽히는 문학제로 성장하였다. 먼저, 예산 측면에서 강원도와 인제군, 조선일보 등의 지원을 받아 8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4일간의 축제행사는 여타 문학제가 1일 정도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과 대비된다. 매년 3개 부문의 만해대상과 4개 부문의 유심작품상 수상 인의 면모나 작품, 시상금에서도 지명도가 높다. 축전시 10여 회의 학술행사를 통해 45편 정도의 논문 발표는 만해라는 인물에 대한 단순 추모에서 벗어나 시인, 독립지사이자 사상가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만해대상에 외국의 저명인사를 포함하고, 외국 문인들을 초대하는 등 세계화에 노력하였다. 청소년 음악캠프와 청년만해학교, 어린이 미술캠프, 전국고교백일장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 축전을 통해 강원도의 오지인 인제군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지역발전과 홍보에 이바지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만해축전은 만해를 스타브랜드화하여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충분히 문화산업화도 가능한 문학제로 볼 수 있다.

IV. 문학진흥정책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만해축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단순히 만해한용운이라는 인물을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술대회와 만해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의 오지에서 개최함에도 비교적 성공적인 문학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문학제 추진 간 나타난 몇 가지 한계점은 앞으로 이 문학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보여주며, 이는 여타 국내 110개에 달하는 여타 문학제의 운영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1. 만해마을 -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만해축전은 한국의 오지로 꼽히는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다. 대동제와 만해대상 시상식 등은 인제읍 하늘내린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만해마을에서 대부분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해마을이라는 독립적 공간에서 개최되다 보니 인제군청으로부터도 유리된 곳이다. 이러한 공간의 제약성은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협조와 참여를 곤란하게 하는 면이 있다.

접근성이 용이하면 공개성도 커지고 접근성이 어려워지면 공개성도 줄어든다. 이러한 공개성은 물리적 가시성뿐만 아니라 사고와 의식의 개방성까지를 포괄한다. 접근성의 강화는 문화 향수권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보호라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다. 빠르게 변화가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medialiteracy)'²⁾ 등의 도입이 중요하며, 이 차원에서 미디어 센터의 설립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공교육체제로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27].

행사장소인 만해마을의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만해마을은 컨벤션센터(문인홀, 설악홀, 금강그랜드볼룸, 세미나실), 문화·수련시설(만해문학박물관, 님의 침묵 광장, 님의침묵 산책로, 서원보전 법당, 만해평화의 종, 운동장), 숙박시설(문인의 집, 설악관, 금강관), 편의시설(식당, 북카페 잇딤일나무, 주차장)로 구성되어 있다. 쉽거리와 문화·숙박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문학제 개최장소로 비교적 구색이 갖춰져 있는 반면, 지나치게 정적이고 활기가 없다. 현재의 유희공간에 낭송전용극장, 수변무대, 캠핑장, 체험장, (문학)도서관, 공연장, 창작공간, 기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추가로 건축하고 축전시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만해마을과 인접해 있는 한국시립박물관과 여초 김응현 서예관과 연계할 경우 문학공간으로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한 환경학교

²⁾ 미디어에 대한 단순한 수용을 넘어 비판적인 독해능력을 말한다.

운영 등 시민단체 및 기업체와 협력하여 문학과 관련된 공익적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볼거리, 놀거리, 쉽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태어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문학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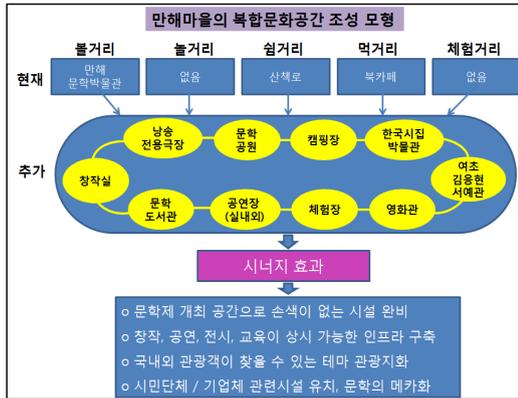


그림 1. 만해마을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모형

2. 문학축제화 - 흥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

만해축전은 학술세미나와 경연대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관객)의 흥을 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야제와 대동제 정도이며 이중 대동제는 지역주민 위주 행사다. 이렇듯이 독자(관객)는 수동적인 입장이어서 개인의 신명이나 공동체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 축전 관계자와 문인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독자나 관객은 수동적인 객체이자 타자화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문학제는 잔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참여자들이 역동성과 활력을 높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흥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4. 문학제와 문학축제의 비교[28]

문학제	문학축제	방법모색
일방적	대화적	관객과의 소통 프로그램
정태적	역동적	관객 참여 프로그램
구연하는 문학	재창조하는 문학	창작 프로그램
관람중심적	참여중심적	콘테스트 개최
단성적(單聲的)	다성적(多聲的)	프로그램의 공모제화
결정적	구성적	외주 공모
생산자 중심	향유자 중심	관객 및 지역주민 참여

주최 측에서는 우선 많은 인원이 축제장을 찾도록 해야 한다. 문학제에서의 성패는 행사장으로 관객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 수 있느냐와 문학애호인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일 것이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지역 문학회 등 주요 문학단체와 협조하여 많은 작가가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원도 및 인제군, 동국대 등과 협의를 통해 강원 도민과 동국대 재학생, 전국의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NS를 활용한 축전 참가자 모집, 관련 여행상품 개발, 메세나(Mecenat)³⁾차원에서 기업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탈리아 만도바 문학축제는 400명 이상의 작가를 초대하여 독자들과 만남의 장을 통해 7만여 명의 관광객(독자)이 참여하고 있어 벤치마킹이 요망된다. 또한, 한국의 보령 머드축제가 관광객들이 다양한 머드체험 즐기 프로그램으로 2014년 외국인 관광객 28만 명을 포함해 329만 명이 참여하고, 2015년 국내 축제 중 유일하게 글로벌 어워드 수상성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문학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시점에서 단순한 시낭송회 등의 문학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뮤지컬, 연극, 영화 등과 조화롭고도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관객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즐길 거리(Seating)가 풍부해야 하며 축제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으로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축제 콘텐츠를 풍부하게 계획하고 방문객의 기호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29].

현재의 만해축전 프로그램은 학술세미나(심포지엄), 시낭송회, 백일장, 전야제 및 대동제, 서예대전, 청소년 문학캠프, 어린이 미술캠프, 청년만해학교, 시상식 등이 개최되고 있다. 향후 북콘서트 등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 행사, 시 창작 아카데미, 자작시 낭송코너, 시낭송 및 암송 경연대회, 만해를 주제로 한 연극 경연대회, 만해 시 그림 공모전, 만해 시 작곡 공모전, 문학 토론 경연대회, 만해 퀴즈대회, 문학콘서트, 문화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만해 체험(독립운동, 옥중체험 등), 만해문학길

³⁾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 25개국에서 32개의 메세나 협의회가 조직되었고 한국에선 1994년 4월 한국메세나협회가 발족돼 현재 185개 기업이 운동에 참여 중이다.

답사, 캠핑 등 시민(관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이고 재미있고 신명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과 다문화, 탈북민 작가들을 초청할 경우 글로벌화를 지향할 수 있다. 주최 측에서는 축전의 홍보콘텐츠, 사진, UCC, 시나리오, 만화는 물론 축전의 프로그램 기획, 공간 구성 등 스토리텔링의 기획 등에 대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모을 필요가 있다.

축전의 프로그램 개선은 축전 참여자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기여와 문학진흥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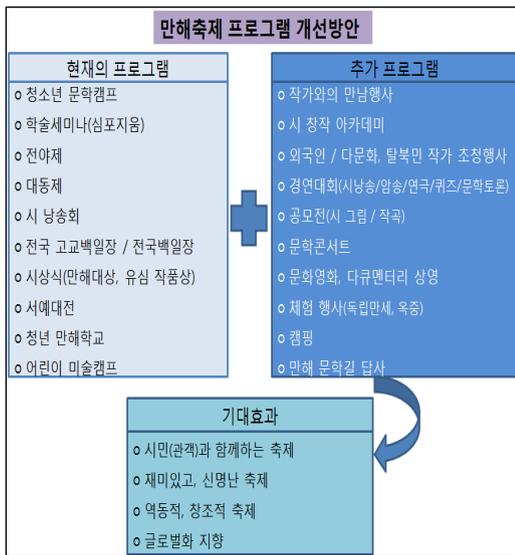


그림 2. 문학축제 프로그램 개선방안

3. 정부의 정책지원 - 슬로시티, 문학 특구 지정

정부의 문학정책에 대한 문인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문인들의 문화예술정책만족도는 ‘매우 만족’ 0.5%, ‘다소 만족’ 6.5%에 비해 ‘다소 불만족’ 35.5%, ‘매우 불만족’ 38%로 나타나 있다. 문화예술정책 결정에서도 문화예술계의 의사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잘 반영’ 0.5%, ‘대체로 반영’이 6.5%인데 반해 ‘거의 반영 안 됨’이 45%, ‘전혀 반영 안 됨’이 10.5%에 달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문인들과 유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30].

따라서 정부에서 문학진흥정책을 추진 시에는 문인

은 물론 문학계 관계자 등 문학 관련 단체와 기관, 인사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만해축전은 강원도와 인제군, 동국대학교, 조선일보사, 재) 만해사상실천현양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고는 하나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이며, 주로 강원도와 인제군의 지원이 큰 편이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40~50개의 문화체육관광 우수축제를 선정(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하여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문학제의 경우 평창효석문화제 1개 정도만 지정되는 등 문학제 자체가 정부 지원 축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각 문학제 추진주체의 무관심에 주로 기인하지만,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부문이다. 정부에서 국내의 문학제 중 만해축전과 같이 행사공간이 상시 확보된 성공적인 문학제를 선정, 중점 지원하여 여타 문학제의 표준모델화할 필요가 있다.

2008년 4월 정부(지식경제부)에서는 전남 장흥군을 국내 최초의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천관산에 국내 유명문인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천관산 문학공원 등을 조성하고 지역 출신 백광홍, 이청준 등의 문학 자원을 복원하여 문학 관광화를 꾀하고 있다. 장흥이 많은 문인을 배출한 것은 사실이나 발 빠르게 정부의 방침을 선점한 셈이다.

강원도 인제군도 만해와 시인 박인환 등의 문학 산실이 있는 곳인 만큼 백담사와 만해마을을 연결하여 문학관광기행 특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특구화에 따른 정부 지원 시 만해마을에 문학공원(문학테마파크) 등의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해축전이 홍보될 수 있을 것이다.

만해마을이 포함된 인제군 북면, 서화면 지역의 국제슬로시티(slow city)⁴⁾ 지정 노력도 필요하다. 이 지역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백담사, 십이선녀탕, 대승폭포, 대암산 용늪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DMZ가 위치한 만큼 이를 연계할 경우 슬로시티 지정 가능성이

4) 1999년 출범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 한국은 11곳이 지정되어 있다.

높다. 슬로시티 지정이 될 경우 만해마을과 만해축전도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다.

향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립문학관 유치노력도 필요하다. 시인 출신 도종환 의원은 2015년 3월 문학진흥법을 발의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국립문학관을 두도록 하였다. 국립문학관을 유치할 경우 그 상징적 의미는 상당할 것이다.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시집 <님의 침묵>은 만해가 인제군 백담사에서 저술하였고, 만해축전이 만해마을에서 진행되므로 이곳에 국립문학관을 유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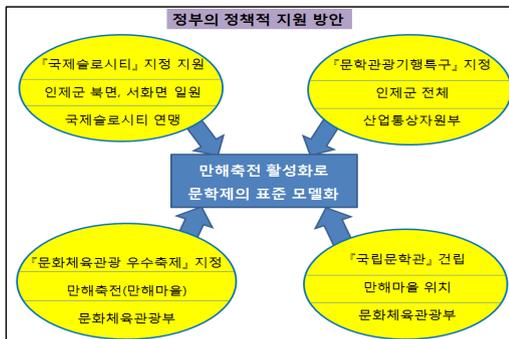


그림 3.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4. 만해의 스타브랜드화 - 글로벌라이제이션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이고 브랜드 시대이다. 현대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점차 무형의 힘(Intangible power)인 문화이미지로 귀결되고 있다. 브랜드는 무형의 자산을 넘어 이미 구체적 실효성을 발휘는 상징자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하다[31].

만해축전은 만해라는 인물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문학제이다. 따라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선승이며 불교개혁가라는 만해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만해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종교와 문학에 있어 남다른 세계를 구축한 결출한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인으로서 당대의 최고로 꼽혔던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미당 서정주의 회절에서 보듯이 일제 강점기 친일문인이 42명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식민지하에서 지조를 지키기가 쉽

지 않았다는 뜻이다[32]. 만해처럼 일제 강점기에 신념을 굽히지 않고 문학을 한 인물은 많지 않다. 또한, 승려로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할 정도의 불교개혁운동을 펼치는 등 만해의 출가와 이후의 인생스토리, 말년에 조국독립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궁핍한 생활을 마다치 않는 등 드라마틱한 인생을 볼 때 스타성이 충분히 있다. 다음 그림으로 스타브랜드화 모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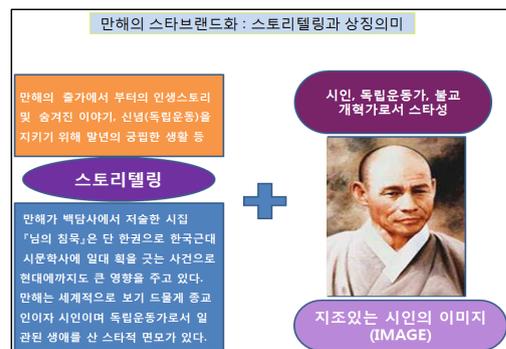


그림 4. 만해의 스타브랜드화 개념[33]

만해축전이 아무리 취지가 좋고 상품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축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화 전략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세계화를 추진하되 지역을 존중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추구해야 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결합어로 경영과 마케팅 분야에서 국제적 사업의 산물과 조직을 지역 상황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모든 가치에서 지역 가치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34].

한류가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각인된 것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뜻하는 것이며, 지역성과 개별성, 특수성 속의 보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문화의 대중화’일 것이며, 문학제도 마케팅을 활용하여 충분히 상품화전략이 가능하다.

만해가 불교인이자 독립운동가란 점은 가장 한국적이라는 지역성이자 평화 애호 등의 보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에 만해에 대한 다큐멘터리, UCC, 3D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성공원작을 통해 다양한 장르를 재창조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는 하나의 원천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마케팅 방식이다. 만해의 이야기를 OSMU로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를 통해 기초콘텐츠를 토대로 무한확장개념인 MSMU(Mulity - Source Multi- Use) 전략을 펴야 한다. 즉, 만해에 대한 전기가 소설과 드라마를 낳고, 그것이 영화와 뮤지컬을 낳을 수 있듯이 만해라는 스타의 상품성을 최대한 살려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영화와 애니메이션, 창작연극과 무용을 결합하여 만해 브랜드를 활용한 문화마케팅,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축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구할 수 있다.

만해축전시에 국제 MICE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유치와 각종 국제 공모전 및 세계 시인대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더욱 나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추구가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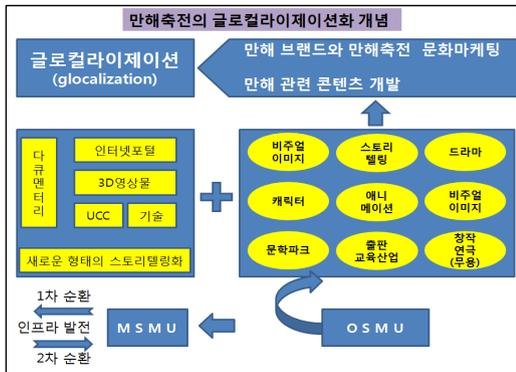


그림 5. 만해축전의 글로벌라이제이션화 방안[35]

미국, 영국 등 지방자치가 잘 정착된 국가에서는 축제에 대한 본질적 의미보다는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상품' 또는 이를 생산해내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36].

V. 맺음말

지금까지 만해축전을 중심으로 문학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보완 가능한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문학진흥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국내 최소 110개가 넘는 문학제는 당연히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문학진흥정책에서 도외시한 분야이며 사실상 문학제 추진 당사자와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짐으로써 그 발전이 더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나 축제 당사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확보할 방안 역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공제는 유행적인 재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상태' 또는 정책을 집행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모두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37].

따라서 문학제에 대해 정부는 공공재로 판단하여 더욱 큰 관심과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 정책적 배려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정책적 논의와 더불어 향후 문학제 진흥정책의 심도 있는 모색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해본다.

첫째, 문학제의 회고 작가와 그의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문화상품으로서의 OSMU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문학제에서 회고하는 작가들은 그 작품들이 가지는 문학적 가치가 충분히 문화상품화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문학제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추구이다. 문학제의 대부분의 크고 작은 행사는 지자체의 연례적인 축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 더 나아가 국제적 교류와 홍보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달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는 문학제의 기획과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문학제를 추진하기 위한 컨소시엄(Consortium)을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각 문학제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컨소시엄은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

여 선정하고, 문학제 주최 측에서는 컨소시엄에 발주를 시켜 운영을 맡기거나 자문을 구하는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문학제는 단순한 지역 문인 위주의 소규모 행사에서 벗어나 순수예술을 뛰어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대중성을 확보할 때 문학진흥의 효과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의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실현은 문학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예술의 홍보 및 부가가치와 문화산업에 이바지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책적 제안을 위한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로 만해축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른 제한이 있어 정책적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 향후 외국의 성공적인 문학진흥정책과 사례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외연을 넓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1] 조남현, *고등학교 문학(상)*,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2] 이기철, “이탈리아 만토바 문학축제와 문예진흥 연구”, *이탈리아어 문학*, 제137집, p.133, 2012.
 [3]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014.
 [4] 연합뉴스, *쪼그라들고, 외면당하고 위기의 한국문학*, 2015. 5.14.
 [5] 이데일리, “조정래·양귀자 배출한 대학문학상, 인문학 홀대에 존폐위기”, 2015.11.10.
 [6] 우혜영, *무용예술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모형*,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 우혜영, 위의 논문, 2011.
 [8] 우혜영, 위의 논문, 2011.
 [9]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인용하여 재구성
 [10] 김지원, *한국춤 문화원형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014.
 [12] 이기철, 위의 논문, 2012.

[13]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14] 정지훈, “문학축제의 미학 - 블룸스테이와 김유정문학제의 비교고찰,” *동서비교문학저널*, 제30호, p.259, 2014.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년 문화연감*, 2014.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년 문화연감*, 2015.
 [17] 인터넷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18] 장홍신문, “이준중 문학제 그리고 장홍의 문학,” 2014.11.11.
 [19]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
 [20] <http://blog.daum.net/mylovemay/>
 [21] http://mcst.go.kr/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22] 조지훈, *한용운론 시와 인생*, 박영사, 1959.
 [23] 서정주, “만해 한용운 선사,” *사상계*, 제113호, p.245, 1962.
 [24] 김익균, “만해 한용운이라는 기념비,” 2014 만해축전추진위원회, p.483, 2014.
 [25] 김종인, “한용운 연구에 대한 평가,” 2014 만해축전추진위원회, p.499, 2014.
 [26] 2015 만해축전추진위원회 제작 팸플릿에서 인용
 [27] 김지원, 위의 논문, 2013.
 [28] 정지훈, 위의 논문, 2013. 인용하여 재구성
 [29] 이제용, “지역문화축제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 2013 평창효석문화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422, 2014.
 [30]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13.
 [31] 오장근, *문화경영의 33가지 핵심코드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인하대, 2006.
 [32] 실천문학, *천일문인 42명의 작품과 목록*, 2006.
 [33] 김지원, 위의 논문, 2013. 인용하여 재구성
 [34] 김지원, “전통춤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문화예술 정책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권, 제3호, p.166, 2012.
 [35] 김지원, 위의 논문, 2013. 인용하여 재구성
 [36] 김현욱, “지역축제의 성장단계별분석과 관리전략 : 함평나비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를 중심으로,”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539, 2015.

[37]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저자 소개

이원오(Won-Oh Lee)

정회원



- 2000년 8월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경찰행정학석사)
- 2013년 8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문화예술정책, 도시정책

류지성(Ji-Sung Rhyu)

정회원



- 1987년 8월 :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행정학석사)
- 1991년 12월 :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행정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

<관심분야> : 정책이론, 문화정책

김지원(Ji-Won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박사)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문화예술정책